



국회는 14일 행정안전위, 복지위, 문방위, 지경위 등 13개 상임위원으로 9일째 국정감사를 진행...

행안위 "대한민국은 수도권 공화국 아니다"

◇행안위=이날 경기도 국감에서는 김근수 지사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발언 등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민주당 최인기 의원은 "수도권에 사람과 돈, 정보, 국가의 주요 생산요소, 사회기반시설 등이 집중돼 있어 수도권과 지방간 불균형이 심화돼 있는 상황에서 김 지사가 막중한 자리를 망각한 채 지역분열을 선동하고 있다"며 "최근 수도권 규제철폐 발언으로 국론분열에 앞장서고 있는 김 지사는 소영웅주의적 행태를 단장 중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또 "김 지사 본인이 지방출신(경북 영천)이면서 비수도권 지역민의 가슴에 '대못질'을 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이번에는 여론의 대권주자로서 수도권 유권자를 다분히 의식한 차원이 있다"며 "김 지사의 발언으로 인해 상처받은 비수도권 지역민에 사과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수도권 주장의 한 사람인 김 지사가 새 정부 출범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균형발전정책을 두고 '망국의 정책이다' '공산당보다 더한 규제다' '허틀러도 이리저리 않았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며 우려를 표시한 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지 수도권공화국이 아니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또 "잘사는 경기도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경기도 내 일부 군사접경지역이나 수질보호구역 내에서 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들이 매우 안타깝게 보이겠지만 그 일부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삶이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전체의 삶이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과 김유정 의원은 경기도의 소방행위가 김 지사의 전용기차탑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두 의원은 이날 "지난 2006년 도지사 당선 이후 올해 6월말까지 김 지사가 모두 93회에 걸쳐 소방행기를 이용했다"며 "특히 부천상



국회 복지위 변용진(선진과창조모임·가운데) 위원장이 14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홍준(왼쪽) 한나라당 간사와 백원우(오른쪽) 민주당 간사를 불러 이봉화 차관 증인체력을 논의한 뒤 오는 24일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문방위 개인정보 유출·스팸 근절 대책 촉구
지경위 지역난방·에너지공 선진화 방안 논란

공회소 신년인사회 참석에 헬기를 이용했고, 김포에서 열린 국회의원 출판기념회에 참석할 때도 헬기를 이용하는 등 공적 범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문방위=이날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인터넷진흥원·전파진흥원 등 국감에서는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또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벌여 개인정보 유출 방지와 보이소피싱, 스팸 메일 및 문자메시지 근절 대책을 촉구했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방향에 따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

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이 1개 기관으로 통합된다"며 "정부는 공공기관 통폐합이 마치 선진화인양 밀어붙이고 있으나 단순한 산술적, 경영조작의 통합이 기존의 전문성 강한 고유업무에 있어서의 시너지 효과로 연결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은 "각종 연구회의 지속 개편안은 새 정부의 정권 코드에 맞춘 졸속 개편이라는 우려가 나오게 한다"며 "연구회·연구기관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개편안 도출을 위해 국제연구기관의 협의 및 실태조사가 선행되고 이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분석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국감에서 인터넷 환경 발달과 더불어 급증하는 해킹 및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에 따른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며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아이핀(I-PIN) 활성화를 포함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보건복지위=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는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쌀 직불금 불법 신청 의혹과 관련, 이 차관 남편 등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 끝에 결국 파행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24일로 예정된 복지부 국감에 이 차관의 남편, 대리 경작인, 서초구청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세우려면 오늘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이날 국감에서 증인 채택을 거듭 압박했다.

민주당 간사인 백원우 의원은 오후 국감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존재하지도 않는 직불금 신청 포기서를 내고 죄가 없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오만한 차관을 얹혀놓고 24일 어떻게 국감을 할 수 있겠느냐"며 "이 문제를 규명하지 않고는 국감을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경위=이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에너지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난방공사의 선진화 방안이 논란이 됐다.

민주당 최철국 의원은 "난방공사는 공공 자본 51%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나 지식경제부 문건을 보면 타사업자의 경쟁을 위해 민영화 이전에 지배력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나온다"며 "공사 선진화 방안이 민영화와 무관하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재권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가스, 전기, 수도, 의료보험은 민영화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는데 난방공사 민영화로 결국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광주시·전남도 청렴도 낮아



복지서비스 수준도 하향세

광주시와 전남도의 대민·대기관 청렴도와 복지서비스가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충조 의원이 14일 배포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올 1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07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광주시는 10점 만점에 8.84점을 받아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12위, 전남도는 8.97점을 받아 10위를 각각 기록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하지만 2006년에는 8.68점과 8.86점으로 전국에서 9위, 3위를 각각 차지한 바 있어 광주시는 3단계, 전남도는 7단계 밀려나는 등 1년 사이 이 대민·대기관 청렴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이 이날 배포한 보건복지가족부 '2007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수준 종합 평가' 결과에서도 지난 2006년 전국 2위였던 광주시는 지난해 전국 3위로 한 단계 떨어졌으며, 전남도는 2006년 10위에서 15위로 5단계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간척사업 설계변경 잦아

농촌공사가 실시하고 있는 대규모 간척사업이 공기연장과 설계변경으로 인해 3조 1천461억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영록 의원이 14일 배포한 농촌공사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기연장과 설계변경을 통해 영산강지구 등 대규모 간척지 7개 지구 개발사업의 사업비가 당초 2조 7천299억원에서 5조 8천490억원으로 3조 1천461억원이 증가했다.

사업지구별 증액비율을 보면 새만금지구 8천200억원에서 2조 8천82억원으로

242% 증가했으며, 영산강 III-2지구 1천769억원에서 3천794억원으로 114%, 금강 II지구 4천158억원에서 7천277억원으로 75%, 영산강 III-1지구 3천280억원에서 4천706억원으로 43%, 영산강 IV지구 7천148억원에서 7천520억원으로 5% 각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속도로사 환경영향 평가 무시"

광주·전남지역 고속도로 공사시 환경영향평가 무시가 일상화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이 내놓은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6월까지 고속도로 공사 중 환경영향평가협의의 미이행으로 환경부로부터 24건이 적발됐으며 이중 광주·전남 공사현장이 절반인 12건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전주-광양 노선에서 협의 기준 초과, 수목이식 계획 미반영, 지하수 폐공 처리 미반영, 토사유출 및 소음진동 대책 미흡 등으로 5건, 목포-광양 노선에서 협의 기준 초과로 2건 적발됐다.

요금 체납 수돗물 중단 5,204가구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난 3년간 수도요금을 체납했거나 미납했다는 이유로 5천204가구의 수돗물 공급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의 수돗물 공급 중단 가구수는 경기도·경남·인천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이 14일 환경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와 각 지자체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요금을 체납했거나 미납했다는 이유로 1천4가구의 수돗물 공급을 중단했다.

전남에서도 지난 3년간 요금 체납·미납 등을 이유로 모두 4천200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지영·김지욱기자 jkpark@kwangju.co.kr

교사 임용시험의 합격 파트너 - 광내영교육학
http://www.naeyoung.com
교육학 _ 광내영 _ 전공국어 _ 최병해 | 국어교육론 _ 마운용 | 전공수학 _ 임대성 | 유아교육 _ 임미선 | 초등교육 _ 위재권 | 일반사회 _ 김형수 | 전공미술 _ 김성희 | 전공체육 _ 김용호 | 전공생물(교육론) _ 강치욱 | 전공물리 _ 장영민
얼마남지 않은 2009학년도 교사임용시험에 만전을 기하시기를 바랍니다. 2009년 1월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2009학년도 합격기원!!!!
매년 교사임용시험에서 광내영교육학의 축적된 노하우가 그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10월 실전 모의고사 해설특강 4회
▶ 선착순 300명모집(조기 마감 유의) ▶ 대상 : 2009학년도 임용시험 준비생 누구나 가능 (해설특강은 인터넷으로 제공되지 않음)
1, 2, 3 학년 재학생을 위한
광내영 교육학 이론 선행학습반 특설(영상)
▶ 커리큘럼이 되기 전에 선행학습을 시작하시면 바뀐 임용시험제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개강 : 11월 1일 (수강료 대폭 할인)
▶ 교원임용 공개설명회(해.금.10시.3시.7시) 바뀐 임용시험제도 안내 및 효율적인 시험계획 수립 ▶ 등록에 부담을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방문 전화 주십시오.
광내영고시학원 대표전화 529-0090
광주광역시 무등경기장 사이(신안 사거리)
등록상 | 에듀뷰넷 www.eduview.net

새로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서구점 ☎ 361-8111
북구점 ☎ 268-8111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전국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50명의 출세 위원급 교수진과 36개학원 네트워크를 통해 합격시키는 강의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개강 11월 3일 (주,아)
주부반, 성인반 국비무료 재직자반
고용보험재직자 교육비환급
처음시작하신분 위한 기초이론 강좌
연회원 등록시 선착순 50명 수강료 특별할인
퀴즈로 선착순 60명
● 전국 최대규모의 공인중개사 전문학원(전국33개 학원체인) ● 최고의 교수진들로 강의 질하는 학원 1위 ● 선배합격자들이 추천한 1등학원 ● 믿음과 신뢰를 주는 학원 1위
합격률 1위 전국수석합격
새로 행정고시학원
서구점 ☎ 361-8111
▶ 농성동 서구청 앞 광주은행 건물 2층
북구점 ☎ 268-8111
▶ 학장이전, 오차동 북부경찰서 건너편 새롬빌딩 4층

유네스코 인정 정규 대학교
한의대 유학! 국내에서 가능!
SCU한의대
캐나다, 미국 한의사가 될수있습니다!
www.scukorea.com
문의전화 010-6834-6253
취업 고민해결! 아메리카대륙에서 성공을!
입학상담/설명회 매일 오후 3시, 4시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 44년 전통 합격률 1위
● 본원출신 전국수석 (승은영님 평균 96.7점)
"2009년 20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는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준비하십시오"
기초과정 → 기본이론 → 심화이론 → 핵심요약 최종문제풀이
개강 11월 3일
기초이론 & 용어 해설
"년회원 수강 등록시"
주부반 · 성인반
수강료 20% 할인혜택 (50명)
(주,간반,야간반)
직장인을 위한 교육보험 환급과정
본원 ☎ 227-8003 전남여고 맞은편 3F
합정점 ☎ 971-0002 (구)비포 함안길 동쪽 4F
국비무료 개강일정 제공

=전통47년! 전국 최대 합격자 배출, 명교수진의 환상의 강좌(직접확인요)=
7.9 급 공무원 합격 대비
직통 행정안전부 검찰출교보보복소기
정육무세원찰공관정전호지방술
'09년 시험은 지금부터
11월 1일(주·야간반 모집)
(현재예약접수중)
합격 회원 모집
● 6개월 : 90만원 (교재 17만원 포함)
● 주·야간반+기초(英·國) 무료특강
※ 수강료가 저렴, 필수합격 확신함.
www.mdgosl.co.kr
222-4560